

# 엔터테인먼트

## Entertainment

### 최지우의 '에어시티' 일본서 드라마 방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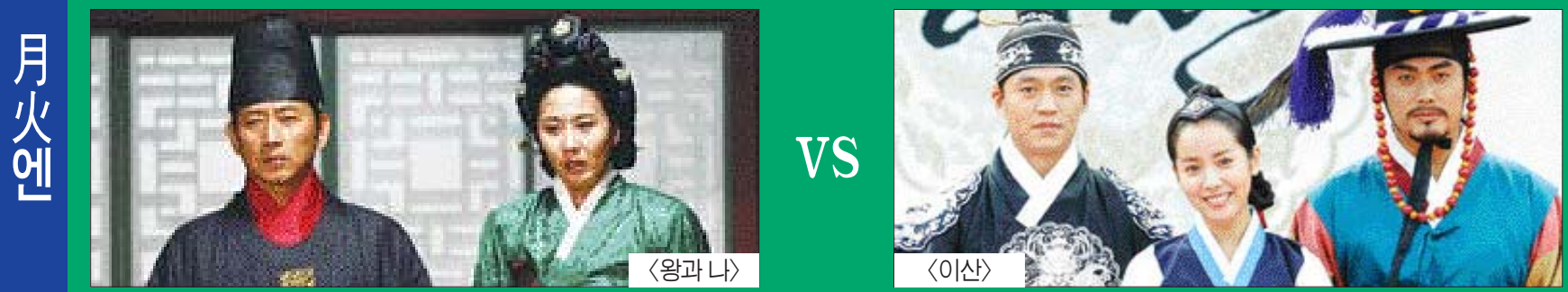
한류 스타 최지우가 오래간만에 드라마로 일본 안방을 찾는다.

일본 위성채널인 와우와우(WOWOW) TV는 다음달 15일 도쿄 에비스가든홀에서 MBC 특별기획 '에어시티'(극본 이선희·연출 임태우) 시사회를 열고 지난 26일부터 방영했다.

시사회는 드라마 첫회를 방영하며 최지우가 나와 무대 인사를 할 예정이다.

드라마 '에어시티'는 일본의 대형 엔터테인먼트업체 덴츠가 약 2억원(약 18억원)에 미리 사뒀던 화제가 됐다. 국내 드라마가 방영 이전에 해외에 팔리는 것은 '별의 왕초'와 '태왕사신기' 정도로 이례적이다.

한편, 동방신기가 '에어시티'의 주제곡 '하루 달'을 일본어 버전으로 불렀다.



## SBS 드라마 전쟁 MBC

**월·화 드라마**

SBS와 MBC가 월·화, 수·목 드라마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다.

SBS의 '왕과 나', '로비스트', MBC의 '이산'과 '태왕사신기' 등 4편은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한 블록버스터급 드라마라는 점과 유명 연출가들의 대결로 방영전부터 화제를 모았던 작품들이다.

현재 월·화 드라마의 경우 먼저 방송을 시작한 '왕과 나'가 3주 늦게 시청자들을 만난 '이산'을 다소 앞지르고 있는 상태. 반대로 수목드라마는 이미 6회 방영을 마친 '태왕사신기'에 맞서 10월3일 '로비스트'가 첫 방영을 시작할 예정으로 있어 첫회 시청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화-수목 대가들의 전쟁**

월·화요일 밤은 '용의 눈물' '여인천하'의 김재형 PD와 '허준' '대장금'의 이병훈 PD의 정면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시간대다.

현재 시청률 면에서는 김재형 PD의 '왕과 나'가 이병훈 PD의 '이산'을 다소 앞서고 있는 상태.

'이산'보다 3주 먼저 방영을 시작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왕과 나'는 유승호 등 아역들의 뛰어난 연기와 '내시'라는 이색 소재를 앞세워 20% 넘는 시청률을 고수하고 있다.

오만석·고주원·구혜선 등 성인으로 배역이 넘어가면서 시청률이 조금 주춤하고 있으며 추석 연휴 기간인 24일 연속 방영된 9회와 10회는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미디어 코리아 조사 결과 12.9%와 19.8%로 하락세가 가속되고 있다.

정조 대왕의 이야기를 그린 '이산'은 방송 초반 이미 터를 닦아 놓은 '왕과 나'를 넘어서지 못하며 고전하고 있는 상태. 25일 연속 방영한 3·4회의 시청률이 15.4%로 자체 최고를 기록하며 추격의 발판을 놓았으나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24~25일 두 작품의 시청률은 추석 특선 영화 등 변수들이 많이 작용해 진짜 승부는 오는 10월 1일 펼쳐질 전망이다. 50부작이 넘는 호흡이 긴 작품이라 시청률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목-블록버스터 대결**

수목드라마의 자존심 싸움을 벌인 MBC '태왕사신기'와 SBS의 '로비스트'는 우선 막대한 제작비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방송 초반 뛰어난 컴퓨터 그래픽으로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은 '태왕사신기'는 드라마 사상 최고의 제작비인 420억원을 쏟아 부은 작품이다.

반면 '로비스트'는 현대극으로는 드물게 170억의 제작비가 투입됐으며 미국과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해외 로케이션을 진행, 새로운 화면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본을 쓰는 작가와 출연진의 면모도 화려하다. '태왕사신기'의 경우 김종학 PD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모래시계'의 송지나가 박경수와 함께 대본을 쓰고 있으며 '로비스트'는 '올인' '주몽'의 최완규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의 주찬욱이 공동 집필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또 '태왕사신기'에 '은사마' 배웅준과 문소리, 최민수, 윤태영 등이 버티고 있다면 '로비스트'에는 송일국, 장진영, 허준호 등이 포진해 있다.

총 24부작 가운데 6회를 소화한 '태왕사신기'의 경우 현재 대박 드라마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청률 30%를 넘어서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역시 24부작으로 진행되는 '로비스트'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태.

광개토태왕을 주인공으로 한 사극과 첨단 무기 매매를 둘러싼 로비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혀 다른 색깔의 드라마가 어떤 승부를 펼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팔방미인 사오리 "만능 엔터네이너 꿈꿔요"

"한국 음식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요. 일본에 비해 음식이 많이 나와서 먹는 재미가 있어요."

눈앞에 한식 상차림이 펼쳐지자 사오리(본명 장은주·26)는 설 새 없이 한국 음식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았다.

한때 일본인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던 사오리의 한국 사랑은 유별났다. 그는 KBS 2TV '미녀들의 수다'에서 얼굴을 알린 후 지상파와 케이블 등을 넘나들며 연기자이자 방송인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유재석 김민희의 놀러와'에서 고정 패널로 출연했고, tvN의 드라마 '위대한 캣츠비'에서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가수 데뷔를 위해 음반 녹음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일본인도 아니고 한국인 사이에도 길 수 없는' 독특한 처지 때문에 심한 마음 고생을 겪었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외국인 신분이었죠. 한국에 오면서 '사오리의 나라'에 간다고 들었는데 오히려 일본인 취급을 당했어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 때문에 '나는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인가'라며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나고 자란 만큼 그곳 사람이 될 기회도 있었다. 20세가 될 때 일본으로 귀화할 수 있었지만 한국 국적을 선택했다.

그는 방송, 가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는 만능 엔터네이너를 꿈꾸고 있다.

노래는 원래 좋아했던 일이라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개인기도 하나쯤 연습할 생각입니다. 기회가 오면 일본에도 연예인으로 진출하고 싶어요. /연필뉴스



##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사람	40만125	50만4천602
2	본 얼티메이텀	33만2천951	97만680
3	관순분여자 남자사건	20만1천910	70만2천142
4	상사부일체	20만1천179	26만79
5	즐거운 인생	15만7천664	48만8천4
6	인베이션	13만7천359	17만2천33
7	두 얼굴의 여친	8만4천854	49만9천261
8	마이 피터	4만9천21	71만7천884
9	월스 아이슬란드	8천907	1만291
10	디워	3천709	783만8천818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태왕사신기	MBC	31.6
2	미우나 고우나	KBS1	26.9
2	대조영	KBS1	26.9
4	무한도전	MBC	24.8
5	왕과 나	SBS	24.3
6	머느리 전성시대	KBS2	22.1
7	KBS뉴스9	KBS1	18.6
8	황금 신부	SBS	18.0
9	해피투게더	KBS2	17.8
10	내결에 있어	MBC	16.9

(자료제공:TNS리서치)

**DVD**

순위	제목	장르
1	꽃미남 연쇄 테러사건	드라마
2	시간을 달리는 소녀	애니메이션
3	본이이덴티티	액션
4	스파이더맨 3	액션
5	침혈생물	액션
6	오! 나의여신님 작다는 건 편리해	애니메이션
7	기동전함 나데시코	애니메이션
8	별의 목소리	애니메이션
9	별의 목소리 두 번째 이야기	애니메이션
10	반헬싱	액션

(자료제공:엑스무비)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거짓말	빅뱅
2	사랑 하나면 돼	백지영
3	착한 거짓말	이승기
4	사랑은 맛있다	휘성
5	천둥	F.T.아일랜드
6	키 작은 꼬마 이야기	하하
7	매일매일	V.O.S
8	물고래미	지아
9	텔 미	원더걸스
10	소 프레스	MC몽

(자료제공:멜론)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미세한 소리도 놓치지 않는 첨단 디지털 기술로 모든 난청을 치료합니다.

**3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day.co.kr

무엇보다도 가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품질에 중점을 둡니다.

상담전화 **1588-8499** | **080-222-0100**